

특별취재

“새만금 조업금지 250척 풀어줘야”

김제 교월동 협의회,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중식제공 봉사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김태한 민간위원장 박경준)는 29일 제월동 월랑 경로당에서 단신맞춰 봉사대(공동대표 최창의 김주택) 후원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및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사업은 협의체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 중 하나로 위원 및 봉사대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함께 나누는 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매일 교월동 소재 마을을 순회하며 장수사진 및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장수사진 봉사활동에는 아모레퍼미넌트(조현경), 박종순 미술실(박종순), 뽀빠이포토(이성수), 제일사회복지관(여은경), 교월사보 부녀회(회장 이영이) 등이 함께하였다.

장수사진 촬영이후 협의체 위원 및 봉사대 회원들이 직접 정성스레 국수를 준비하여 마을 어르신들과 맛있는 점심식사를 서로가 즐겁게 함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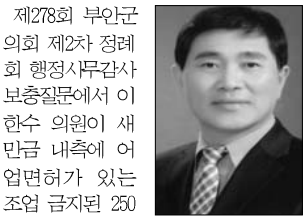
이날 봉사활동을 함께한 박경준 공동위원장은 “평소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함께 먼 훗날 사용될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장수를 기원했으며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태한 교월동장은 “위축되고 외로운 삶에 활력을 제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주민들이 있어 감사하다”며 “주민들의 참여로 교월동이 효(孝)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고 따뜻한 동네로 나아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사업은 매일 넷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장수사진을 액자에 담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의회 이한수의원, 군정 질문에서 운행 못하는 배들에 대해 언급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충질문에서 이한수 의원이 새만금 내륙에 어업면허가 있는 조업 금지된 250여 척에 대해 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안군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질타하고 나섰다.

이한수 의원(사진)은 250척의 어선이 정박할 하려는 대안으로 가력항을 확장해야 하는데 가력항 확장을 위한 예산이 진행 중인데 공사가 완공되면 7~8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운영을 못 하는 배들이 부식되어 손상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산·돌·바다와 노력이 어울려 사계절 관광지 수백만 명이 찾고 있는 격포 앞바다와 봉화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석불산일원에 자연을 활용한 축제 개발을 위해 철쭉산을 조성할 것을 질의했는데 개화 시기가 마실 축제와 비슷해 기존에 심어져있는 철쭉 동산의 확장을 검토하겠다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잡목만 무성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답변에서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력항을 확

장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번에 다행이 가력항 확장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현재 새만금 내륙이 어로 금지 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로금지 구역 해제와 새만금 내륙을 내수면으로 볼 수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한 상태로 내수면으로 편성되면 내륙에 300ha정도의 내수면 양식장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어선감축사업 등을 통해 어선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석불산일원 철쭉꽃동산으로 조성해야 할 곳이 개인 사유지라 추진 안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토질 지역 주민들의 의견, 토 지주와 협의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사업 등을 활용해서 적절한 수종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날 김생기 시장은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과 유윤근 국회사무총장, 김태년·김동철 예결위 간사, 이개호 예결위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찾아 정읍시 지역 사업의 추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김제시 폭력예방 연합 캠페인

김제시(시장 이근식)는 29일 터미널 사거리에서 김제시청, 김제경찰서, 김제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여성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폭력 예방 연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매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을 맞아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폭력없는 세상,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아동·여성이 안전한 김제를 만들고자 실시되었으며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폭력 예방 포스터 전시도 병행하였고, 등교 및 출근길 학생과 시민에게 안내 전단지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성폭력·가정폭력과 더불어 성희롱·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을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또한 폭력예방을 위한 배너를 제작하여 19개 읍·면·동 및 다중 이용 장소에 설치하였으며 안전으로부터 취약한 아동·여성에게 호신용경보기를 배부하여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김제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상동지구대 순찰차 장비점검

겨울철을 대비해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 지구대는 신속한 출동과 각종 사건사고에 체계적이고 능숙히 대응하려고 순찰차량 탑재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였다.

특히 상동 지구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체인 삽 모래주머니, 열화관 등 필수 장비를 탑재하고 기타 통신 장비와 응급장비에 대한 가용 여부도 점검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안전운전 요령도 교양했다.

김용철 상동 지구대장은 “연계 발생하지 모르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2순찰차에 기본적인 장비와 비상용품 구비로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국가예산 반영 ‘총력’

296억원 전액 증액 요구

김생기 시장은 지난 29일에 이어 29일에도 국회를 방문, 지역사업 국가예산 반영 건의 행보를 줄지어 이어갔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과 유윤근 국회사무총장, 김태년·김동철 예결위 간사, 이개호 예결위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찾아 정읍시 지역 사업의 추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정부(기재부)가 추

가 예산 반영 동의를 보류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공원 조성 사업 404억원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 규모 축소 없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요구액 296억원 전액 증액에 동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기재부)의 추가 예산 반영 동의를 예상되는 정읍경찰서 신축(350억원)과 농축산물 마일넷 제품 인증 지원(30억원), 제3공공 매립시설 조성공사(89억원) 요구액도 전액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 대상 사업으로 분류된 방산사 백신전용 특수연구시

설(150억원)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재부)의 예산 추가 반영 동의를 위한 기상인체학교육관 시설 확충(84억원), 화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280억원), 내장산 구름다리 조성(30억원), 축산부산물 친환경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17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동절기 동안 재해·재난 예방 위한 안전관리 대책 세우

저소득 계층 위주로 지원

김제시(시장 이근식)는 동절기 동안 각종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김제시는 현장 행정 위주의 예방활동 강화와 더불어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재해·재난 예방활동 강화, 교통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 저소득 소외계층 등 주민지원 대책, 동절기

감염병 예방, 농가피해 예방대책 등 국·소별 2개 세부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특히 행정지원국에서는 동절기 사회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러 안전개발국에서는 시가지 환경정비, 화재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공동주택 안전점검, 저소득 난방유 지원, 폭설대비 제설대책, 산불예방 및 가로수목 보호, 상수도 동파예방,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추진한

다.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절기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운영, 농축산 설해피해 경감 대책,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근식 김제시장은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 김정순씨 김제시청에 허리보온벨트 50개 기탁

김제시, 독거노인에 지원

전주 ‘복엔커피’숍을 운영하는 김정순씨는 29일 김제시청을 방문하여 독거노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허리보온벨트 50개(170만원 상당)를 기탁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김제시는 지역 내 65세 이상 독거노

인 50명을 선정해 후원받은 허리보온벨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기업인 김정순 대표는 “홀로 사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이웃사랑 나눔이 기쁨 두 배 되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근식 김제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몸품을 후원해주어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준 김정순 대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우리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16회 별나라 여행축제가 12월 3일 오후 5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상평동 공설운동장 인근)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지역 내 청소년과 학부모 등 1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별 보러 오세요”

12월 3일 정읍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제16회 별나라 여행축제’가 12월 3일 오후 5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상평동 공설운동장 인근)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지역 내 청소년과 학부모 등 1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가 기상청과 연계하여 건립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개최됨에 따라 정읍 천문연구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에서는 정읍천문연구회 회원들이 그간 익힌 실력으로 직접 별자리를 안내하고 망원경을 조작하여 시민들에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 설치된 천문관측 체험시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우리나라 이미주어 천문우주과학의 선두주자인 천문우주학회 대표 겸 충남대학교 교수인 이태형 박사가 초청강사로 나서 ‘화성 탐사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우주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 이곳에 기상인체학교육관이 건립되면 전국의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연중 천체 관측과 함께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정읍시 대한민국 천문과학체협의 대중화를 이끌어 가는 선도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처음 열리는 제16회 별나라 여행축제가 정읍시민의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관심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이병철 의원·부위원장에 김경숙 의원 선출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지난 28일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 새해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위원장인 이병철 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자(가선거구)의원, 김윤진 의원, 서백현 의원, 운주현 의원, 박두기 의원, 김경숙 의원으로 총체적으로 구성됐다.

이병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예결특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의례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내실있는 김제시의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부서별 중복사업 파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 예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5일부터부터 14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회계 5,373억원과 특별회계 656억원 등 6,029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는 2016년 당초예산 5,224억원보다 총 805억원(15.4%)이 증가한 규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자격증 과정 성료

역사논술지도사·북아트활용교육 1급 지도자 수료식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하 시립중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자격증 과정 수료식이 지난 29일 있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문화프로그램 자격증 과정 일환으로 ‘역사논술지도사’와 ‘북아트활용교육 1급 지도자’ 과정을 운영했다.

역사논술지도사 양성 과정 수료식은 29일(17명), 북아트활용교육 1급 지도자 과정 수료식(4명)은 29일 열렸다.

역사논술지도사 양성 과정은 3월 18일에 시작하여 이달 18일(30차)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역사적 사실들을 돌아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과 함께 역사 논술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기르

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북아트활용교육 1급 지도자 양성 과정은 3월 22일부터 이달 29일(33차)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는 종이의 다양한 활용을 알아보고 글쓰기와 그리기, 만들기 등 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독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며 “내년에도 관련 분야의 교육 과정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자격증 과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열띤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 과정을 개설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